

## SK그룹, 해비타트 48가구 건설 기공

SK그룹은 무주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한국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비타트-SK행복마을>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고 10월26일 발표했다.

2008년까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200여명이 거주하게 될 48가구의 주택을 짓게 되는데 SK그룹은 부지 및 건설자재 구입비 등으로 60억원을 지원하고 해비타트는 부지 확보와 개발, 건축시행, 사후관리 등을 맡게 된다.

SK그룹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과 고객 봉사단을 집짓기 행사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SK그룹과 해비타트는 2005년 행복마을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06년 3개동 18가구를, 2007년 12가구, 2008년에는 18가구를 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5년 3월 SK자원봉사단장인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과 한국 해비타트 정근모 이사장, 수원시 김용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약을 맺은 바 있다.

SK그룹은 "대규모 자금과 자원봉사 인력을 투입해 기업의 이름으로 마을을 조성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화학저널 2005/10/28>